

# 무재해 3백만시간 돌파 남양주 랜드마크 동양건설산업의 호평파라곤 아파트

**바르게 성장하는 기업 동양건설산업  
무재해 3배, 300만시간 돌파로  
남양주에 랜드마크를 건설하다.**

빠르기 보다는 바르게 성장하는 정도경영을 추구하고 있는 동양건설산업에서 시공하고 있는 남양주 호평파라곤 아파트가 드디어 무재해 3백만시간을 달성하였다.


1969년 창립이래에 국내외 주택, 토목, 플랜트, 환경 등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동양건설산업은 회사 설립 이래 「빠르기보다는 바르게 성장하는 정도경영, 고객과 사회에 봉사하는 가치경영,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지식경영」으로 국

내 건설업체중 가장 신뢰받는 대표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에게 감동을 실현시키고자하는 품질과 KEPIC 등의 환경적 기술로 탁월한 기술 경쟁력을 통해 고속성장을 이루고 있는 동양건설산업의 남양주시 호평동 파라곤 아파트는 동양 건설의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고객 만족을 넘어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detail로 승부해야 한다는 경영방침을 펼치고 있는 한용수 현장소장(상무)은 “현장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품질경영과 안전경영 방침으로 지속적인 고객의 만족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 말한다.





## 동양건설산업

동양건설산업의 호평파라곤 아파트는 8만4천여평의 부지에 지하3층 지상15~20층 아파트19개동 테라스하우스 6개동(총1275세대)등이 세워지고 있는 대규모 현장으로 남양주의 랜드마크로 세워지고 있다.

Paragon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국내에 유럽풍의 고품격 주거 명작을 선보인 동양건설산업의 남양주 호평 파라곤은 논현 파라곤, 청담 파라곤, 목동 파라곤에 이은 또하나의 명품Paragon으로 자리잡을 예정이며 완벽한미를 실현한 걸작으로 태어나고 있다.

호평 파라곤 현장에는 특별히 테라스 하우스도 세워지고

있어 주목받고 있는데, 유럽의 낭만적 분위기의 정원을 가정에 들여 놓은 컨셉을 구사하고 있다. 친환경적 디자인 뿐 아니라 국내 최초로 주거시설에 연료전지 기술을 도입·사용함으로써 아파트 분야 친환경적 기술개발의 시발점이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호평파라곤 현장에 들어서자 돋보이는 것은 우선 민간아파트 사업으로는 국내최초의 유럽식 디자인과 설계를 통해 고품격 아파트의 이미지를 추구했다는 점이다. 또한, 최상의 품질을 위해 국내 최초의 연료 전지 기술 도입 및 영구배수 등의 기술을 도입해 주변 환경과 친화를 이루었으며 고급 공동주택으로의 품격으로 수영장, 헬스장, 키즈룸, 경로당 등 각종 근린 복지시설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 입주자에게 최상의 만족을 제공하고자 시공하고 있다.

지하층의 결로 및 유수 방지를 위해 영구배수를 시공한 것과 벽체 및 바닥슬래브에 배수판을 설치한 것 등 쾌적한 주차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점이 특히, 주목받고 있으며 근처의 아파트와 차별화된 외부 석재마감과 조경시설을





• 빠르기 보다는 바르게 성장하며 정도경영을 추구하고 있는 동양건설산업에서 시공하고 있는 남양주 호평파라곤 아파트가 드디어 무재해 3백만시간을 달성하였다.

통해 아파트의 품질을 한단계 상승시켰다고 볼 수있다. 이외에도 내부 마감재를 작은 평형에서부터 큰 평형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석재, 타일, 아트월 등의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함으로써 수준을 상향조정, 고품격 아파트 Paragon 브랜드의 명성을 실현시켰다.

오늘도 호평파라곤 현장의 동양건설산업인들은 아름다운 천마산과 조화를 이루며 어우러지는 주거명작으로 친환경적 명품 파라곤을 내가 세운다는 신념으로 구슬 땀을 흘리고 있다.

### 자율안전경영활동으로 이뤄낸 무재해 3배 달성

매일아침 7시 정각이면 호평파라곤 현장은 한용수 현장 소장(건설안전기술사) 등 전 직원 및 근로자가 참여하는 안전체조로 시작된다.

“안전은 생명이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KOSHA 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도입해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안전활동을 실천한 결과 단 한건의 안전사고 없이 무재해 3배달성(3,000,000시간)이라는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 냈다. 호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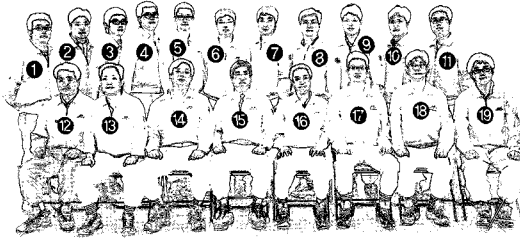
파라곤 현장의 한용수 소장이하 전 임직원 및 근로자들이 이뤄내고 있는 높은 품질의 주거명작은 무재해 3배 3백만시간 돌파로 그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어 이들의 기쁨과 보람이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다.

건설안전기술사인 한용수 현장소장의 안전에 대한 관심은 철저하기로 소문이 나있는데, 주3회 이상 팀장급 주간회의는 안전으로 시작해서 안전으로 끝이 날 정도이며,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과 안전기술 도입이 있었기에 무재해 3,000,000시간 달성은 가능했다고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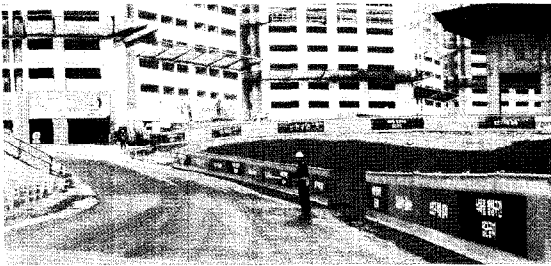
### 다양하고 철저한 안전활동

호평 파라곤 현장은 다양하고 활발한 안전 활동으로 무재해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직원 및 근로자들의 심혈관계 질병예방과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직무스트레스 측정용 비롯해 타워크레인 Troubleshooting 운영으로 타워크레인 기사와 작업자간의 문제해결 등을 통해 작업능률의 향상까지 도모하고 있다.

또한 파라곤의 안전상자 운영으로 즐거움이 시작되는 체



- ① 유백상 건축기사    ② 신영준 건축대리    ③ 고경태 건축기사
- ④ 천성훈 건축기사    ⑤ 남민식 설비기사    ⑥ 정병석 설비대리
- ⑦ 박영환 설비대리    ⑧ 조복현 안전과장    ⑨ 김현중 건축과장
- ⑩ 손영우 건축대리    ⑪ 장영진 건축대리    ⑫ 권일현 건축차장
- ⑬ 김일현 안전차장    ⑭ 최용준 건축차장    ⑮ 한용수 현장소장
- ⑯ 권순홍 설비차장    ⑰ 박덕원 관리차장    ⑱ 김일수 공무과장
- ⑳ 권혁빈 건축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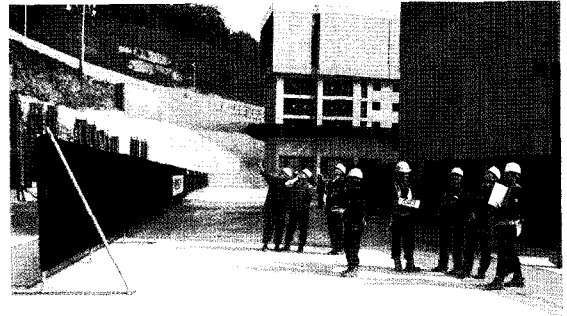
◦ 쾌적한 작업환경

조와 조희시간을 만들었으며, 근로자 교육은 아차사고·사례 유경험자 중심으로 사례발표를 하게함으로써 발표자에게는 포상을 근로자에게는 동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체적으로는 근로자 교육 참여도를 높이는 동기를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국내 건설현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래형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지개 안전운동을 도입해 현장에 맞춰 개선해 적용하여 관리감독자의 안전의식을 더욱 높이고 있으며 4H운동(4Hazards 예방운동)과 8대 가시물질 집중관리 운동 등을 펼쳐 추락, 낙하, 재해사고 등의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기술을 기반으로 펼치고 있는 감성 안전관리를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동시에 지속적으로 실천 가능한 원칙과 규칙을 세우고 지켜나가고 있는 호평파리곤의 완벽현장은 오늘도 무재해를 향한 이들의 함성이 메아리치고 있다.

취재 • Willy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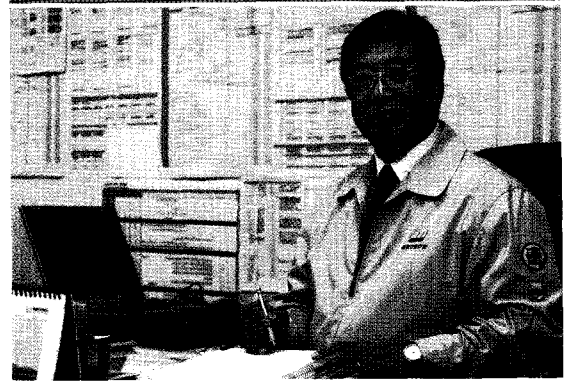


\*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안전점검



◦ 매일 아침 안전결의를 다지고 있는 근로자들.

남양주 호평파리곤 **한용수** 현장소장(상무)



한용수 상무(건설안전기술사)는 지난 78년 대한주택공사 빌주의 수리시 매단동 아파트 현장을 시작으로 고건 공동주택, 종교시설, 토지구획정리사업공사, 주상복합, 호텔, 오피스텔, 재건축조합 아파트 등 건설업에 망라되는 모든 현장을 경험한 실무 베테랑이다. 특히 81년 사우디 주베일 801-CO2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세계 초오량 건설사인 미국 벡텔사와 공동으로 수행한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습득한 PC 공법에 대한 첨단기술을 국내에 접목시킨바 있으며, 92년에는 구리 교문리 아파트 현장의 154kv 절탑이 현장을 가로지르는 난공사도 1건의 안전사고 없이 무사고 완공하는 저력을 일궈낸 장본인이다.